왼쪽부터 김숙·홍진경·강예원·한채영·홍진영·공민지·전소미

평균 34세 언니들 본격 걸그룹 도전

'언니들의 슬램덩크2' 김숙·홍진경 등 몸치·박치 좌충우돌 프로젝트 … 내일 첫 방송

"'여자 예능'이 시즌2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시청자들께 감사합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의 원년멤버로서 새 시즌에서 다시 한 번 걸그룹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된 개그맨 김숙. 감동도 잠시, 맏언니로서 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멤버는 10대부터 40대까지, 춤과 노래 실력의 격차도 어마어마하다.

김숙은 8일 '언니들의 슬램덩크2' 제작발표회에서 "시즌1에선 실력이 레벨 1부터 5까지 있었다면 이번엔 1부터 10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언니들의 슬램덩크2'는 시즌1에서 시청자의 호평을 받은 '걸그룹 프로젝트'를 중심축으로 가져가면서 사이사이에 일곱 멤버의 꿈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원년멤버였던 김숙과 홍진경에 더해 새 멤버로 대륙의 여신에서 엄마가 된 배우 한채영과 성악과 출신의 강예원,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공민지, '진짜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전소미가 합류했다.

17세 막내 전소미부터 43세 맏언니 김숙까지 일곱 언니의 평균연령은 34세.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걸그룹 프로젝트로, 제작발표회 무대에서부터 이들은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걸그룹이 되는 과정도 시즌1보다 힘들어졌다. 실제 걸그룹처럼 동일하게 합숙하고 그룹내 유닛을 결성하며 월말·기습평가 등으로 긴장감을 높였다.

김숙은 가수가 3명이나 새로 합류한 만큼 너무 쉬운 도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힌트를 좀 드리면 제가 이 중에서 춤과 노래를 못 하는 편이 아니다. 상위권이다. 이게 쉬운 도전이겠냐.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한채영은 "제가 춤, 노래와 거리가 멀다"며 "음치에, 몸치에, 남편 말로는 박치까지 있다고 한다"고 이실직고했다.

그러면서도 "꿋꿋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사실 사람이 누구나 욕심은 다 있지 않냐. 다들 반대하지만, 마지막엔 제가 꼭 우리 걸그룹 '언니쓰'의 '센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채영은 "예능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런 기회를 한 번 놓치면 다신 안 올 것 같아서 도전해보고 싶었다"며 "멤버들도 맘에 들고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자 7명이서 숙소생활을 하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촬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놀러왔나 싶을 정도로 재밌었다"고 강조했다.

한채영은 센터 후보를 얘기하다가 "제가 실력이 최하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기뻤던 건 홍진경 언니를 (첫번째 평가에서) 이겼다"며 "꼴찌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스포일러'를 유출했다.

이에 홍진경이 옆에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김숙과 함께 원년멤버인 홍진경은 시즌1에서 음치·몸치로 눈물까지 흘리며 고전한 기억이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며 변신을 다짐했다.

홍진영은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2007년에 걸그룹 '스완'을 했었다"며 "당시에는 두 달 만에 망했는데 제가 트로트를 계속할 것이지만 못다 핀 걸그룹의 꽃을 이번 기회에 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래는 좀 잘하는 편이지만 춤이 안 돼서 녹화할 때 점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몸도 마음도 경건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안무창작가'로서의 재능을 '모자란' 언니들을 위해 맘껏 펼칠 공민지는 "제가 월드투어도 했던 걸그룹 출신이지만 걸그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헤쳐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색다른 도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오아이라는 든든한 둥지를 떠나 '센 언니'들과 함께하게 된 전소미는 "아이오아이 멤버들도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준다"며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예원은 이날 "제가 성악과를 졸업은 했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음악과 담쌓은 시간이 길었다"며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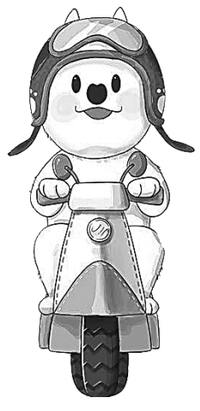
이어 "제가 원래 박치인 건 알고 있었지만, 홍진경 언니보다 춤을 못 출 거라곤 상상을 못 했다"며 "진경 언니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번째 미션에서 꼴찌를 했다. 지금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민지양이나 전소미양처럼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박인식 PD는 "막내라인인 민지, 소미는 거의 '재능기부' 수준으로 춤과 노래가 엉망인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고생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총 16회로 10일 밤 11시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양림동 충견' 동개비 이야기 싣고 달립니다

애니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SBS 12일 첫 방영



양림동 충견상을 모티브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사진〉가 오는 12일 오전 7시10분 SBS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는 광주 캐릭터 개발업체 (주)스튜디오 피쉬하이커가 2015년 지역특화 문화콘텐츠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제작한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했다.

'동개비'는 양림동 설화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조선시대 양림동에 살던 선비 '정엄'은 한양까지 문서 수발을 다닐 정도로 영특한 개 한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한양에 다녀오던 개는 전주 즈음에서 새끼 9마리를 출산했고 한마리씩 집까지 물어나르다 지쳐 죽고 만다. 이후 정엄은 충직하고 모성애 깊은 개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

애니메이션은 9마리 새끼 중 한마리가 주인공으로, 엄마 개처럼 '배달' 임무를 맡은 동네 사고뭉치 '동개비'가 서민들의 행복을 전하는 '이야기 배달부'로 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개비 캐릭터는 현재 네이버 라인에서 이모티콘 서비스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영문으로 'Dongaebi'를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양림동 곳곳에서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JYJ 김준수 "호텔매각 먹튀? 억울해"

"1년 9개월 (입대로) 잠시 연예계를 떠나니 눈 감고 귀 닫자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것은 명예훼손을 넘은 인격살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YJ의 김준수(30·사진)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 매각과 관련, 세금 혜택만 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다는 '먹튀 논란'에 휘말리자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준수는 7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가 슈퍼카를 소유하고 좋은 집에 사는 배경에 비도덕과 부당 이익이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며 "꿈의 공간을 만들고자 호텔을 생각했고 운영하면서 비전문 경영진들에게 맡겨두다 보니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호텔 경영으로 이익이 생기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호텔 소유자로서 경영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 잘못은 있다"며 "하지만 그럴 때마다 끊임없는 연예 활동으로 얻은 개인 소득을 호텔 경영에 보탰다. 직원들 월급은 지키기 위해 개인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사는 반대였다. 저는 '먹튀'였고 공공의 돈을 취득한 사람처럼 순식간에 결론이 내려졌다"며 "'정말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해명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말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제가 받은 수치심과 상처는 누가 치유해줄지"라고도 했다.

그는 "매각을 결정한 것은 전문 경영인과 함께해 이 호텔과 직원들이 더 좋은 미래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김준수는 9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꼼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임 쏘리 강남구 〉
9	30 KBS 뉴스	00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숨터(재)	00 수목드라마〈김과장〉(재)	00 불어라 미풍아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꼼지락 5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5 제14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	00 비타민 (재)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시, 뉴스브리핑
3	3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00 TV블로그 꼼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재)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0 KBS 뉴스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5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년 기념행사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년 특집다큐 〈꿈을 넘어 별이 되다〉
7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행사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	55 MBC 뉴스데스크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행사
8	00 한국인의 팔도밥상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특집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신년기획 2부작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리더십〉 55 숨터 VR 신년기획 지붕없는 박물관	00 수목드라마〈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씽나인〉	00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년 특집다큐 〈로드 투 평창〉	10 해피 투게더	10 세가지색 판타지-우주의 별이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 24 45 MBC 다큐프라임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시계마을 티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부모 〈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황태강정〉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쿨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윙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
15:45 코코코다코
16:15 두다다쿵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오늘 〈산골 마을 촘린의 겨울〉
20:50 세계테마기행 〈인살라, 모로코 - 북대서양, 풍요와 낭만을 걷다〉
21:30 한국기행 〈암자기행 - 지금,여기서 즐겁게 살아라〉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책대로 한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방학 때 아침에 일어나는게 더 힘든 이유는?〉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9일(음 1월 13일 丁卯)

子 48년생 세월에 묻혀 버릴 뻔한 비밀을 소상히 듣게 되리라. 60년생 한시도 쉴 수없는 숨찬 하루가 될 것이다. 72년생 크게 상관될 바가 아니니 기존의 도량대로 추진하라. 84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않아서 호전되겠다. 행운의 숫자 : 11, 60

丑 49년생 부단한 노력이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지경에 이른다. 61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73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85년생 변하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1, 35

寅 50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62년생 함께하는 자리에 빠지면 아니 되겠다. 74년생 기존의 정황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일이 발생하리라. 86년생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몹시 당황하는 모양이니라. 행운의 숫자 : 71, 27

卯 51년생 지금이야말로 제때를 만났으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63년생 실제의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75년생 큰 가닥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87년생 안심해도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38

辰 52년생 근소한 차이가 천지간이 될 것이다. 64년생 예비 작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 76년생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관재구설을 자초하리라. 88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행운의 숫자 : 52, 22

巳 53년생 발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교류가 있다. 65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자. 77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89년생 조짐이 심상찮으니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3, 97

午 42년생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 되어 퍼져나가게 마련이다. 54년생 평상시에 보여줘라. 66년생 불완전한 바탕 위에 놓여 있다. 78년생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라. 90년생 방심하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86

未 43년생 구상만할 뿐 추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5년생 꼼짝할 여유마저 없는 형세이다. 67년생 의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79년생 흥왕의 기운이다. 91년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78, 72

申 44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56년생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히 다잡아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68년생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80년생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21, 81

酉 45년생 길고 짧은 것은 비교해 봐야 알 것이니 그전에는 논할 필요가 없다. 57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겠다. 69년생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자. 81년생 조금 모자라긴 해도 양호한 편이다. 행운의 숫자 : 34, 57

戌 46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하다. 58년생 암운이 떠도니 신중히 처신해야만 할 것이니라. 70년생 모든 것을 차지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82년생 스스로 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6, 40

亥 47년생 진행하여 손해는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가담하여도 무방하다. 59년생 자신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71년생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무방하다. 83년생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행운의 숫자 : 80, 1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